

All Together!

강북삼성병원 | 우리병원 의사이야기

의사이야기 더 알아보기

“심장에 닿은 의사의 마음”

정의석 교수는 심장과 대동맥을 수술하는 의사다. 수술하고 환자를 돌보는 일로 일과 대부분을 보내고, 틈틈이 글 쓰고 그림을 그린다. 의사 정의석과 인간 정의석의 삶은 얼핏 달라 보여도 실은 깊고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병 이면의 사람을 헤아리는 의사의 진심은 환자들이 병을 이겨내게 하는 힘이 된다.

“흉부외과 의사를 산다는 것”

어릴 적부터 그의 꿈은 의사였다. 워낙 다방면에 관심이 많아 잠시 다른 전공을 공부했던 때도 있었지만, 결국 의학의 길로 돌아왔다. 어린 시절에는 영화나 드라마에 등장하는 영웅 같은 의사를 상상했으나, 실제 의사의 삶은 픽션 같지 않았다. 따뜻한 아메리카노 한 잔의 여유는 사치가 된 지 오래. 통통 불은 짜장면을 에너지 공급원 삼아 씹어 삼켜야 하는 날도 잦았지만 그런 데도 그는 흉부외과 의사로 사는 일에 보람을 느낀다. 몇몇 병원을 돌며 스스로 가망 없다 좌절했던 환자들이 수술을 받고 회복해서 외래로 찾아올 때면 힘들었던 순간도 잊는다. 자기 몸이 고된 것보다 환자가 좋아지는 기쁨이 더 큰 까닭에 그 모든 과정을 자연스레 받아들여지게 된다.

“흉부외과 수술을 하려면 적어도 6년 이상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그 안에 충분히 수술에 능숙해지지 않으면 의사로서 낙제이죠. ‘흉부외과가 힘들다’는 말은 그만큼 수술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가끔은 낭만이 생명을 구한다”

환자를 돌보며 일상 대부분을 보내지만, 틈날 때면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린다. 2015년에 출간한 <심장이 뛰는 말>은 전공의 시절부터 기록 해온 일기를 담은 책. 이 책에 들어간 일러스트 역시 그의 솜씨다. 이 책에 수록된 에피소드 일부가 화제의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 시즌1에서 극화되기도 했다. 2021년에도 산문집 <병원의 밥 : 미움의 마음>을 냈다. 병원에서의 음식을 통해 삶을 돌아보게 하는 이 책은 태국에서도 출간될 예정이다. 시간을 굉장히 쪼개서 생활하지만, 기록을 통해 힘을 얻는다는 정의석 교수. 흉부외과 의사의 삶은 낭만적이지 않지만, 이처럼 가끔은 낭만 덕분에 생명을 구할 힘이 생긴다.

“요즘 흉부외과 의사들을 만나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환자들은 흉부외과 의사를 만날 기회가 없어서 돌아가실 수도 있습니다. 심장과 연결된 대동맥은 팔뚝 정도 크기인데 유전이나 노화, 석회화 등으로 딱딱해지거나 커지기도 합니다. 대동맥이 6cm를 넘어간 환자의 20%는 1년 안에 돌아가시기도 합니다. 이 정도 비율을 지닌 질환은 매우 드뭅니다.”

2021년에 강북삼성병원에 부임한 그는 일 년에 100건 이상의 수술을 소화하며 환자를 살렸다. 같은 마음으로 일하며 시너지를 높일 수 있는 동료와 함께하는 귀한 경험을 하고 있다는 요즘, 그는 의사로서 환자를 살리는 시스템을 갖추는 데 몫을 다하고자 한다.



흉부외과
정의석 교수

협력병원 의료진을 위한 교수 직통 핫라인 안내

심장 및 대동맥 수술	정의석 교수(CS) 010-8662-6890 김민수 교수(CS) 010-5031-0198
심장 및 심혈관질환	이종영 교수(MC) 010-2507-4780 이승재 교수(MC) 010-5437-7700
뇌혈관 응급수술	정연구 교수(NS) 010-8893-9139
내과계중환자	송원준 교수(CCM) 010-8944-4111

외과응급수술	박용준 교수(GS) 010-5493-3891
골반고관절 골절	박재형 교수(OS) 010-2345-4186
무릎질환	안지현 교수(OS) 010-5418-2966
신생아중환자	심재원 교수(PED) 010-3225-3822
소아응급내시경	김은실 교수(PED) 010-7181-1725



발도 절단할 수 있는 당뇨병성 족부병변

행복건강이야기 더 알아보기

신현우 교수
강북삼성병원 성형외과

당뇨병 환자 15% 이상이 겪는 흔한 질환

당뇨병을 앓고 있는 사람의 발에 생길 수 있는 모든 문제를 **당뇨병성 족부 병변**이라고 합니다. 당뇨병 환자는 말초 신경병증과 다리의 말초혈관 문제 영향으로 발에 감염·궤양 등 손상이 발생합니다.

당뇨병성 족부 병변 고위험군

- | | |
|--------------|--------------------|
| 1. 만성 고혈당 | 6. 족부궤양 과거력 |
| 2. 당뇨병성 신경병증 | 7. 하지절단 과거력 |
| 3. 말초혈관 장애 | 8. 당뇨병성 신장질환(투석환자) |
| 4. 불량한 영양상태 | 9. 발톱 기형, 망치 발가락 |
| 5. 흡연 | 뼈의 돌출 등 발 변형 |

발 건강 수칙 지키기

- ✓ 혈당 잘 조절하기
- ✓ 매일 발 상태를 점검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관리하기
- ✓ 정기적인 발 검진 및 문제 의심시 신속하게 병원 찾기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한 당뇨병 환자의 발 상태

- | | |
|---------------------------|---------------------------------|
| 1. 발에 상처 발생(크기 불문) | 6. 38°C이상 고열이나 통증에 대한 감각 감소 |
| 2. 72시간 이상 지속하는 통증 | 7. 물집·티눈·굳은살 등에서 악취를 동반한 분비물 발생 |
| 3. 갑작스럽게 감각이 둔해짐 | 8. 통증 유무와 관계없이 발톱 주위에 발적·부종 관찰 |
| 4. 경련이 있고, 쭈시면서 불편함 | 9. 발·다리 어느 부분이라도 |
| 5. 발 부위의 열감, 발적(붉게 부어 오름) | 검푸르거나 검은 색깔로 변함 |



손성된 발 기능 회복시키는 연부조직 재건술

이 수술은 다양한 원인으로 결손된 신체 부위를 다시 채워주는 치료법입니다.

발의 조직이 괴사하거나 상실 됐을 때 자가이식 수술을 통한 미세수술기반 연부조직 재건술(유리 피판술)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괴사된 발의 조직을 제거하기만 하면 결국은 절단에 이르게 될 수 있습니다.

미세수술기반 연부조직 재건술은 당뇨병성 족부 병변 등 신체가 손상됐을 때 굉장히 유용한 치료법이지만, 까다로운 고난도 수술이기도 합니다. 연부조직 재건술의 핵심은 새롭게 이식한 조직이 살아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아주 가느다란 혈관·신경·힘줄 등을 정밀하게 연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연부조직 재건술은 수술이 어렵고 일부 실패율도 있는 편이지만, 이 방법이 아니면 괴사가 발생한 당뇨발은 절단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반드시 시도해봐야합니다.**

“

당뇨병 환자에게 많이 발생하는 당뇨병성 족부 병변은 치료가 쉽지 않고, 상처 회복까지 긴 시간이 소요됩니다. 치료보다 예방이 더 중요한 이유입니다. 당뇨병 환자는 건강한 발 유지를 위해 평소 관리에 관심을 갖고, 올바른 방법을 꼭 실천해야 합니다.

”



성형내과 신 현 우 교수

진료분야 수부외과, 사지재건, 피부종양, 피부암, 만성상처, 화상, 켈로이드·흉터

진료일정 오전 : 수요일
오후 : 월요일 / 목요일

고령화와 함께 증가하는 피부암 & 악성흑색종

최영준 교수
강북삼성병원 피부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를 보면 국내에서 피부암으로 진료받은 환자는 2016년 1만9236명에서 2020년 2만7211명으로 4년 새 **약 42%**가 늘었습니다. 피부암의 주요 종류에는 △**기저세포암** △**편평상피세포암** △**악성흑색종** 등이 있습니다.

악성흑색종 진료 환자 10년 새 2배 급증

2011년	2576명
2016년	3484명
2021년	4734명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

악성흑색종 환자 연령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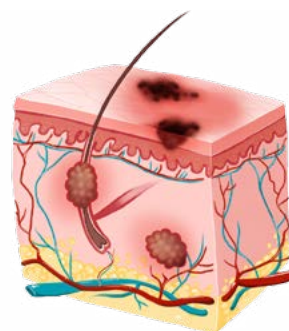
70대	25.9%	60대	22.6%
80대 이상	18.8%	50대	18.8%

※ 중앙암등록본부 2019

피부암 중 가장 예후 나쁜 악성흑색종

피부암 중 예후가 제일 안 좋은 **악성흑색종**은 피부에서 갈색 멜라닌 색소를 만드는 멜라닌 세포가 악성화 돼서 발생하는 피부암입니다. 피부에서 멜라닌 세포가 있는 곳에는 어느 부위에든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악성흑색종이 다른 피부암들보다 예후가 나쁜 이유는 증식이 빠르고, 림프관을 따라 폐·뼈·간 등 다른 장기로 쉽게 전이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선천적으로 **지름 약 20cm 이상의 선천성 거대 멜라닌 색소성 모반**이 있으면 암으로 악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제거하거나, **정기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가장 발전된 피부암의 효과적인 치료법 모즈미세도식수술

모즈미세도식수술은 가장 발전된 피부암 수술로 손꼽히며, 떼어낸 피부암 조직을 냉동절편으로 만든 후 현미경으로 관찰하여, 피부암이 완전히 제거될 때 까지 절제와 확인을 반복하는 수술법입니다.

피부암 조직을 매 단계마다 얇게 저미듯 절제하기 때문에 **피부 결손과 흉터를 최소화** 할 수 있어서 환자들에게 **기능적·미용적**으로 장점이 큰 수술법입니다.

“

피부암을 예방하려면 과도한 햇빛 노출을 피하고, 자외선 차단제 사용을 생활화 해야 합니다.

모든병이 그렇지만, 피부암도 초기에 치료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악성흑색종은 일반적 반점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반점에 모양·크기·색·두께 등의 변화가 있으면 빠른 시간 내 피부과 진료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대부분 피부암들은 예후가 좋은 편이어서 피부암으로 진단받아도 좌절하지 말고, 모즈미세도식수술을 시행하는 병원의 의료진과 수술 전 상담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피부과 최영준 교수

진료분야 피부암(모즈미세도식수술), 피부외과 수술 (흉터, 켈로이드 및 양성종양), 손발톱질환, 흉터예방, 대상포진, 피부노화, 레이저/리프팅/보톡스/필러시술, 난치성사마귀, 족부피부질환

진료일정 오전 : 월요일 / 수요일
오후 : 수요일 / 금요일



세상이 빙글빙글 어지럼증

이정엽 교수
강북삼성병원 이비인후과

어지럼증을 일으키는 질환들

말초전정계 질환	양성 돌발성 체위 현훈(이석증) / 전정신경염 / 메니에르병 / 전정편두통
중추신경계 질환	뇌경색 / 뇌출혈 / 뇌종양
심혈관계 질환	빈혈 / 부정맥 / 기립성 저혈압
기타 질환	심인성 / 안과 문제



꺾속에 돌이 돌아다닌다? 이석증

이석증이 부른 어지럼증 특징

1. 머리를 특정 방향으로 움직일 때 갑자기 더 나타난다.
2. 어지럼증은 발병 초기 및 아침에 일어날 때 심하다.
3. 어지러울 때 머리를 움직이면 증상이 더 심해진다.
4. 머리를 움직이지 않으면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개선된다.
5. 어지럼증은 몇 분 동안 지속하며, 구토·오심이 동반될 수 있다.

이석증 예방에 도움이 되는 방법

1. 과격한 운동이나 행동시 머리를 다치지 않게 조심한다.
2. 머리를 갑자기 확 돌리는 행동을 주의한다.
3. 평소 잠자는 시간 이외에 너무 오랫동안 누워있지 않는다.

이석증에 따른 어지럼증은 전정기관에서 떨어져 나온 이석을 본래 자리로 되돌리면 쉽고 빠르게 치료됩니다.
이석증에 적용하는 가장 효과적인 치료법은 이석을 되돌리기 위해 고개의 위치를 바꿔가면서 진행하는 물리치료인 **이석치환술**입니다.

어지럼증에 난청까지 동반하는 메니에르병

메니에르병이 부른 어지럼증 특징

메니에르병은 프랑스 의사 메니에르가 처음 보고해 붙은 이름입니다. 이 병은 귀 안쪽의 달팽이관과 균형기관 속의 림프액이라고 하는 액체의 압력이 증가하면서 발생합니다. 이 압력이 증가하는 이유는 아직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짠 음식, 스트레스, 과로, 유전 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메니에르병에 어지럼증과 함께 동반되는 증상들

- 저음역대 청력이 낮아지는 난청, 이명(귀울림), 귀가 꽉 찬 듯한 이충만감

이 병을 치료하려면 수개월 동안 약물 치료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 치료가 효과가 없으면 고막 안쪽의 고실 내에 겐타마이신 주입술을 시행하고, 일부 환자는 내림프낭 감압술 또는 미로 절제술 같은 수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병에 동반되는 증상인 난청이 지속되면 관련 치료도 필요합니다.

초기 어지럼증 매우 심한 전정신경염

전정신경염이 부른 어지럼증 특징

- 심한 회전성 어지럼증이 몇시간에서 며칠 간 지속한다.
- 구역·구토나 눈떨림이 동반될 수 있다.
- 2~3일 후 증상이 나아져도 머리 움직임에 따라 어지럼증이 발생할 수 있다.
- 어지럼증이 완전히 회복되려면 길게는 몇개월이 걸리기도 한다.

치료법

전정신경염은 전정재활 치료를 중심으로 어지럼증과 구역·구토를 줄이는 약물 요법을 병행해서 개선합니다. 전정신경염때문에 어지러워도 신체를 계속 움직이면서 균형잡기 훈련을 하는 것이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평소 고무공 벽에 던졌다 받기, 배드민턴, 자전거 타기 등을 하면 전정신경 강화 및 예방에 좋습니다. 아울러 병이 생긴 이후에는 최대한 조기에 전정재활운동을 시행해야 회복이 빠릅니다.

“

한글의 특성 상 '어지럽다'라는 표현은 매우 다양한 어감을 줍니다. 민족적 특성으로 우리는 배가 고파도 '밥을 안 먹었더니 어지럽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어지럼증은 다양한 이유로 발생하기 때문에 이비인후과적인 말초성 원인인지, 뇌혈관 문제 등 중추성 원인인지 혹은 단순한 심리적 원인인지를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어지럼증의 다양한 원인을 감별하고 환자에게 올바른 길을 제시해주는 것이 이비인후과 의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비인후과 이정엽 교수

진료분야 이명, 난청, 어지러움, 내시경 귀수술, 소이증, 외이도 폐쇄증, 선천성 이루공

진료일정 오전 : 화요일 / 오후 : 목요일

매년 30만명 진료받는 뇌전증

선우준상 교수
강북삼성병원 신경과

뇌전증은 뇌졸중과 치매 다음으로 환자가 많은 **3대 신경계 질환**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매년 약 30만명의 환자가 뇌전증으로 병원을 찾고, 매년 2만명의 뇌전증 환자가 새로 발생합니다. 선입견에 따른 편견을 갖기보다 이 질환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한 것입니다.

뇌전증이 있으면 다양한 발작을 보이고, 이차적인 신체 손상 및 뇌 손상의 위험도가 있어서 증상이 의심되면 조기 진단을 통해 관리해야 합니다.

뇌전증 환자의 대부분은 치료를 통해 발작 없이 생활할 수 있고, 완치도 가능합니다.



뇌전증에 따른 발작 종류 & 특징

부분 발작	1. 단순부분 발작	- 발작하는 중 의식이 명료하다. - 증상이 신체 일부에 국한되어 나타난다.
	2. 복합부분 발작	- 발작하는 중 의식 저하나 소실이 있다. - 신체 일부에 국한된 증상을 보인다.
전신발작	증상 초기부터 의식장애와 전신 증상이 나타난다.	

뇌전증 전조증상

- 신체 특정 부위에서 느껴지는 저림·통증 등의 감각이상
- 가슴이 답답하거나 속에서 뭔가 치밀어 오르는 듯한 증상
- 공포감
- 환청
- 이상한 냄새
- 환시 등



뇌전증 환자 연령에 따른 발병 원인

영·유아기	주산기 뇌손상	선천성 기형	대사 이상
	열성경련	뇌 감염	
어린이, 성인	해마경화증	뇌혈관기형	뇌염
	뇌 외상	국소피질이형성증	
노인	뇌졸중	뇌종양	뇌 외상
	신경퇴행질환		

뇌전증 진단 위한 주요 검사 & 특징

뇌파검사(EEG)	뇌전증 일으키는 뇌세포의 전기적 활동 확인
	민감도가 낮아서 필요시 반복 검사 시행 약물 치료 반응 및 지속 여부 결정하기 위해 정기적인 검사 필요
뇌자기공명영상(MRI)	발작을 일으키는 구조적인 뇌병변 진단 해마경화증, 피질이형성증, 뇌종양 등 확인

치료방법

- 환자의 60~70%는 항뇌전증 약물치료로 발작 없이 생활
- 약물치료로 조절되지 않고, 국소적인 뇌전증의 원인 병소가 있으면 국소절제술 고려
- 그 외 뇌심부자극술(DBS), 미주신경자극술(VNS) 등의 수술도 가능



“

뇌전증은 불치병이 아닙니다.
대부분은 약물치료만으로 발작 없이 생활할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항뇌전증 약물치료를 위해선 먼저 정확한 뇌전증 진단과 환자 개개인에 맞는 적절한 약물 선택이 중요합니다.
약물 치료를 시작한 후에는 뇌전증약을 빼먹지 말고 규칙적으로 복용하는 것과 수면부족 또는 음주 등 발작의 유발요인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신경과 선우준상 교수

진료분야 뇌전증(경련성 질환), 수면장애 (수면무호흡, 코골이, 수면중 이상행동, 하지불안증후군, 과다주간졸림, 불면증), 실신, 뇌염, 두통, 어지럼증

진료일정 오전: 월요일 / 목요일
오후: 수요일 / 금요일



우수논문 소개

본원 역대 최고 IF 저널(상위 1.4%) 내분비내과 박철영 교수

학술지명 European Heart Journal

제목 Acromegaly and cardiovascular outcomes: a cohort stud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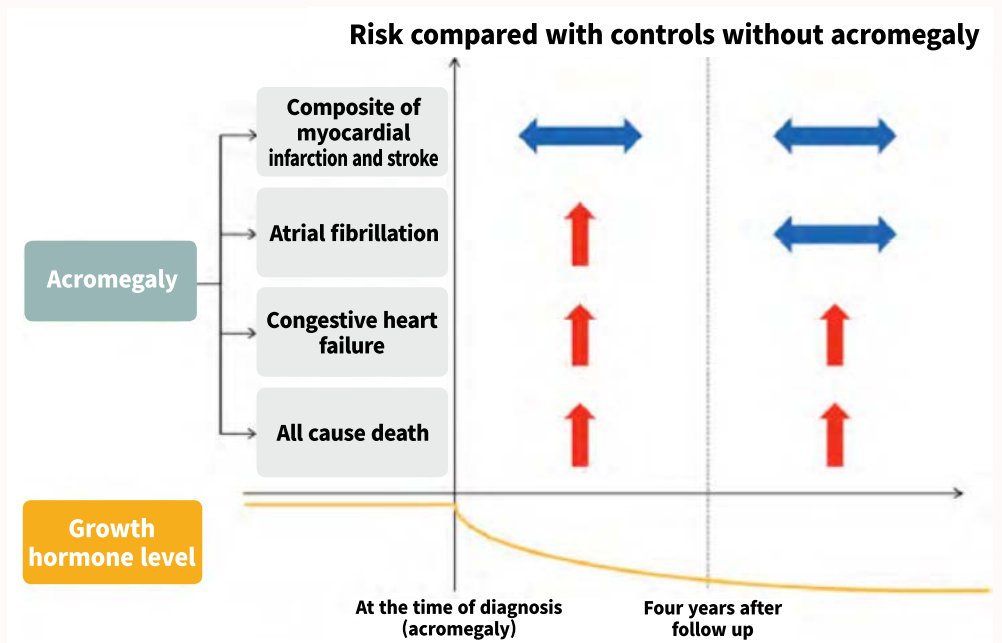
연구결과 말단비대증 환자의 심근경색 및 뇌졸중 발생 위험이 증가하지 않았으나 부정맥, 심부전 사망률은 유의하게 증가함.

Abstract 전체 소개

Aims : Cardiovascular disease is a common complication in acromegaly. We investigated the risk of cardiovascular disease and mortality in patients with acromegaly in a large-scale population using nationwide data in Korea.

Methods and results :

We performed a nationwide, retrospective, observational, cohort study of patients with acromegaly (n = 1874) and age- and sex-matched subjects without acromegaly (n = 9370) for a mean follow-up of 7.5 ± 3.2 years. The study outcomes were myocardial infarction, stroke, atrial fibrillation, congestive heart failure, and all-cause death. All outcomes were analysed by Cox proportional hazards regression analysis while controlling for age, sex, household income, place, Type 2 diabetes, hypertension, and dyslipidaemia. The incidence (per 1000 person-years) of atrial fibrillation (3.06 vs. 1.70; P = 0.001), congestive heart failure (3.11 vs. 1.63; P < 0.001), and all-cause mortality (6.31 vs. 4.03; P < 0.001) in patients with acromegaly was higher than in controls. However, the incidence of myocardial infarction and stroke did not differ between groups. After adjustment for covariates, the risk for atrial fibrillation [hazard ratio (HR): 1.59; 95% confidence interval (CI): 1.09–2.31], congestive heart failure (HR: 1.54; 95% CI: 1.06–2.25), and all-cause mortality (HR: 1.31; 95% CI: 1.01–1.69) was significantly higher in patients with acromegaly. In time lag sensitivity analysis, a higher risk for atrial fibrillation was observed only in the first 4 years after diagnosis in acromegaly patients compared with controls (HR: 3.05; 95% CI: 1.94–4.79).



Conclusion : Patients with acromegaly were at higher risk for atrial fibrillation, congestive heart failure, and all-cause death. The risk of atrial fibrillation had a time-dependent association with acromegaly.

Keywords : Acromegaly • Atrial fibrillation • Congestive heart failure • Mortality • Myocardial infarction • Stroke



신경외과 전치만 교수

대한소아신경외과학회 연세우원학술상 수상

신경외과 전치만 교수가 제34차 대한소아신경외과학회 정기학술대회에서 최우수 논문상인 '연세우원학술상'을 수상했습니다.

전치만 교수는 'Outcome of endoscopic transcortical intraventricular biopsy of isolated thickened pituitary stalk lesions in children' 제목의 논문으로 이번 상을 수상했습니다.

연세우원학술상은 최근 1년간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된 소아신경외과 관련 논문 중 임상적 중요도와 학술적 가치가 가장 높은 논문의 주저자에게 주어지는 상입니다.



강북삼성병원

진료예약 안내

진료협력센터 02) 2001-1100 (운영시간 외에는 핫라인으로 연결)

운영시간: 평일 오전 8:00 ~ 오후 6:30 / 토요일 오전 8:00 ~ 오후 1:00